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8. 4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7/28~8/1)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달러 강세 나타나면서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주요국 관세 협상 결과, 미 정부에 유리한 결과라는 평가 속 강달러 이어지며 환율 상승세 지속
- 중반, 7월 FOMC 앞둔 관망세에도 캄차카반도 강진 및 쓰나미 소식에 따른 엔화 강세 영향에 하락 전환
- 후반, 한-미 무역협상 합의 소식에도 연준의 매파적 정책기조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연동되며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예상을 웃돈 미 PCE 등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영향 더해지며 1,400원 상회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81.0	1,401.7	1,377.9	1,401.4	+20.4

달러/원 전망

- 금주, 원화 환율은 하방 압력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
- 우선, 한-미 관세 협정 타결에도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등으로 미국에 대한 경상흑자 규모 축소 등 수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확대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여기에 연준의 매파적 금리 결정 이후, 시장의 향후 금리인하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 측면 또한 달러 강세 견인 요인으로 보여짐
- 하지만 전주 7월 비농업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커진 측면이 초반 환율 하방 압력을 높이면서 한주 시작할 전망
- 다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간 긴장이 고조되는 점 등은 하단 제한할 요인

예상거래범위

1,380원 ~ 1,400원



유로·엔화 동향 (7/28~8/1)



유로화 동향

- 초반, 미국과 EU 간 협상 체결에도 주요 품목 관세 부과로 인한 우려가 부각되며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가 유로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 속에 약세 분위기 지속
- 중반,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나자 큰 폭의 약세 시현
- 후반, 독일 CPI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유로존 금리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하며 유로화 소폭 반등. 이어 주 후반, 예상을 크게 밑돈 미 비농업 고용지표에 달러 가치 급락하자 강세 보이며 1.15 달러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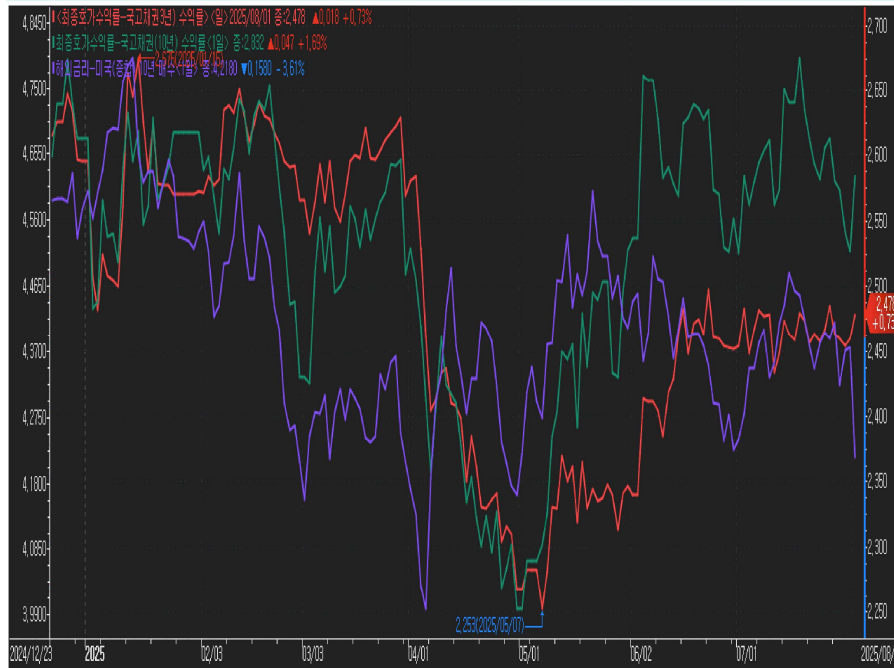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741	1.1771	1.1392	1.1586	-0.0155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총리 퇴진 관련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 유입되며 추가 약세 제한
- 중반, 7월 FOMC 결과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크게 약화함에 따라 강 달러 압력 속 큰 폭의 약세 시현
- 후반,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우에다 BOJ 총재 발언에 엔화는 추가 약세. 이어 주 후반, 미 고용지표 부진 소식에 시장 내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빠르게 유입되자 강세 전환 후 147엔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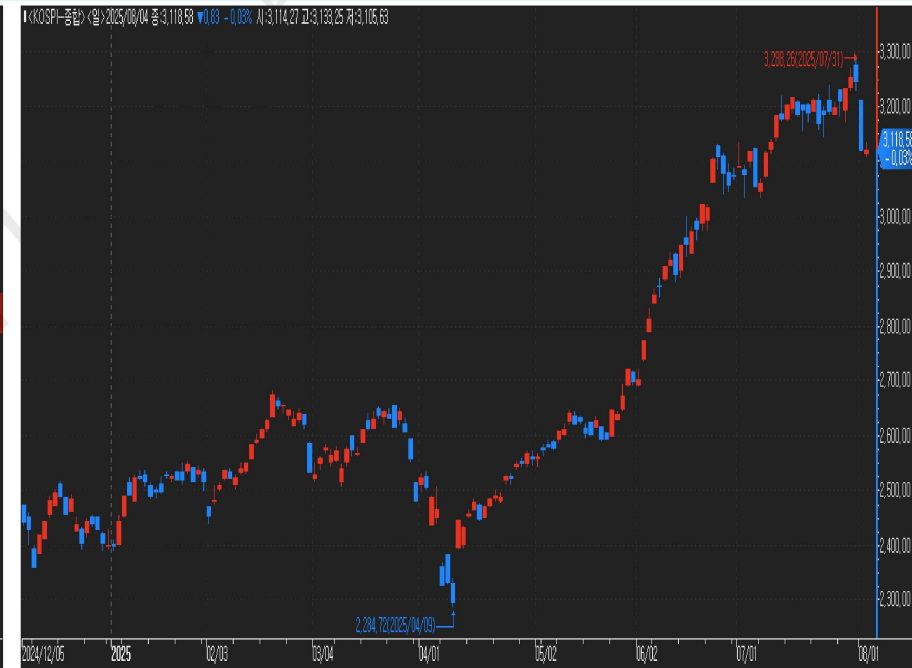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7	150.9	147.3	147.4	-0.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28~8/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전주 후반 미국과 EU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 이후, 한-미간 관세 협상을 주목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한-미 관세 협상과 FOMC 등을 대기하며 제한적 소폭 하락 국면 시현
- 중반 들어, FOMC에 대한 경계감 속 소폭 하락 추세 이어진 양상 보인 후,
- 후반 들어, 7월 FOMC에서 금리인하 소수 의견이 나왔지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 어조가 크게 반영된 국면에 따라 국고채 금리 강보합. 여기에 한 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 타결도 일부 위험 선호 요인으로 작용한 형국. 이어 주 후반, 간밤 발표된 미국 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대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단기 구간 국채선물을 모두 순매도하면서 국고채금리는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EU간 관세율이 30%에서 15%로 타결되면서 투자심리 개선되었지만 한-미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며 상승 제한한 국면. 하지만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 공시 등에 따라 지수가 상방 지지된 형국 시현 이어,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과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도 삼성전자 턴어라운드 기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심리 개선되며 소폭 상승
- 중반, 코스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반영되며 6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3,250선 도달
- 후반 들어,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이전 6거래일 상승하며 협상 타결 기대를 선반영 해온 만큼에 대한 장중 차익실현 매물 확대 속에 하락 전환 양상 시현. 이어 주 후반, 8월 첫 거래일 들어서며 정부의 세계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미 금리인하 후퇴의 이중 악재를 소화하는 가운데 4% 가까운 하락 속 급격히 시장 냉각되며 하락 마감